

#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조기건설 시동



1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조기건설을 위한 국회포럼에서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달빛내륙철도(광주~대구) 조기 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국회포럼이 1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대구시와 광주시는 물론 노선이 통과하게 될 7개 지자체(담양군, 순창군, 남원시, 함양군, 거창군, 함천군, 고령군)와 해당 지역 국회의원이 주최한 이번 포럼은 해당지역 주민과 학계 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달빛내륙철도의 기능과 역할, 필요성,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사업의 조기 추진방안을 찾기 위해

미련했다.

제1부에서는 광주전남연구원 양철수 박사의 '달빛내륙철도의 필요성 및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와 대구·경북연구원 한근수 박사의 '남부경제권, 달빛철도가 시작이다'라는 주제로 기초발제가 진행됐다.

2부 토론회에서는 계명대학교 김기혁 교수가 좌장을 맡고 정부(국토교통부 철도국장), 학계 전문가, 언론인 등 패널 8명이 참여해 달빛내륙철도의 필요성과 조기 건설방안 기대효과 등에 대해 중점 토론을 진행했다.

달빛내륙철도는 대구와 광주를

## 국회서 포럼 갖고 기능·역할 등 논의 총연장 191km 약5조원 소요 국책 사업 경유지 9개 지자체장 협의체 구성 속도

있는 총연장 191km에 약 5조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대규모 국책 사업으로 문재인 정부가 영·호남 상생공약으로 채택하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한 사업이다.

대구시와 광주시는 지난 7월 달빛내륙철도 사업을 조기 추진하기 위해 '달빛내륙철도 건설 추진협의회'를 출범하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또한 10월에는 노선이 통과하는 9개 지자체의 실무자 협의회를 출범시켜 사업추진을 위한 공조방안을 논의했으며 대구시와 광주시 의회는 물론 대구 서구의회와 광주 서구의회가 공동으로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내년에는 2~3월께 대구시와 광주시가 공동으로 3억원을 투입해 자체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며 용역결과는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등 중앙정부 설득을 위한 논리와 사업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포럼을 계기로 대구시와 광주시를 비롯해 남원시, 고령군, 담양군, 순창군, 함양군, 거창군, 함천군 등 달빛내륙철도 경유지 9개 지자체장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와 광주 간 철도가 놓이면 영·호남 1시간 생활권으로 진입해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해져 남부 초광역경제권을 구축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달빛내륙철도가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 동구, 더드림동구 어르신 택배 효과 만점

광주 동구가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더드림동구 택배사업'이 노인일자리를 창출은 물론 주민편의 증진에 기여하며 효과를 내고 있다.

더드림동구 택배사업은 아파트단지 내 유휴공간에 택배보관 트레일러를 설치하고 어르신들이 택배회사로부터 물건을 인수해 해당거점에 직접 배달하는 사업이다.

현재 화마을, 계림금호, 두산위브 호반베르디움2차, 두암그린아파트 등 5개 아파트에서 15명의 어르신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1인당 월 25~35만 원의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다.

### 서구, 공중위생관리 3년 연속 최우수

광주 서구가 광주시 주관 공중위생관리사업 분야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광주시는 매년 공중위생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공중위생관리사업 추진상황을 평가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공중위생관리사업 활성화 서비스수준 향상, 자치구 특수시책 추진 등 3개 분야 11개 지표 23개 세부항목별 지표에 따라 평가가 실시됐다.

이번 평가에서 서구는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서비스평가, 크린속박업소 관리 등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강화에 기여한 점을 높이 인정받았다.

### 남구, 시여파 무술년 금당산해맞이 행사 취소

무술년 새해를 맞아 가정의 평화와 행복 등을 기원하는 '2018년 금당산해맞이' 행사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를 위해 취소됐다.

광주 남구는 18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방역단계 수준이 최고 수준인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및 조기 종식을 위해 무술년 새해 예정됐던 금당산해맞이 행사를 부득이하게 취소한다"고 밝혔다.

금당산해맞이 행사가 취소된 것은 지난 2010년 연말에 경기 북부와 강원도, 충북 등 전국적으로 사상 유례가 없는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7년만이다.

### 북구, 마을활동가 한자리서 사업성과 공유

광주 북구는 19일 시화문화마을 문화과 커뮤니티센터에서 마을활동가 및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 마을의 꽃'을 노래하다라는 주제로 올해 마을만들기 사업을 마무리하는 성과보고회를 갖는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지난 1년 동안 활동한 마을공동체의 성과를 공유하고 주민과 마을활동가들의 노고를 서로 격려하면서 소통과 화합을 통한 마을만들기 공감대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오치동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단체인 '리치폴드' 팀의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1부 '마을만들기 사례발표', 2부 라디오 생방송 형식의 '수고했어 올해! ON Air'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 광산구, 학습동아리 정책 한마당 개최

15일 광산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7년 학습동아리 정책마당'에 출전한 구 공직자들이 제안한 사업의 일부다. 학습동아리는 부서와 업무구분 없이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결성해 우수 사례를 수집·분석하고 구정에 적용 가능한 정책을 수립하는 광산구 공직자들의 모임이다.

이날 행사에는 13개 학습동아리에 가입한 공직자 80명이 국내외 연수에서 가다듬은 정책 제안 13건을 소개했다. 이날 행사에는 광산구 공직자 300여 명이 참가해 동료의 정책 제안을 경청했다. 본인 업무나 부서와 밀접한 정책 제안은 꼼꼼하게 살피고 발표자에게 자료를 요청하는 모습도 보였다. 광산구는 각 동아리가 미리 제출한 발표 자료를 사전에 심사한 점수에, 현장 청중 투표 결과를 합산해 우수 정책을 선정했다.

임형택 기자

## 광주시, 음식물쓰레기 최다 오명 벗어나 전년비6.5%감량 올해 14만5962t 발생...처리비용 절감

광주시가 올 한해 집중적인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추진한 결과 지난해에 비해 6.5%가 감량됐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 9월까지 12개월간 공동주택, 단독주택, 소형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양은 14만 5962t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의 15만 608t에 비해 6.9%가 줄어든 것으로, 공공지원화시설의 안정적 운영은 물론 자치구 처리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광주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매년 지속적으로 늘어 2015년에는 1일 537t으로 치솟아 광역시 승격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1인당 하루 평균 발생량도 0.36kg으로 전국 최고 수준의 발생량을 보였다.

이를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도 연 320억원에 달했으며, 공공 처리시설의 과부하로 인한 반입량 제한으로 결국 자치구의 처리비

용 증가로 이어졌다.

이에 광주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음식물 쓰레기 30% 감량 운동을 통해 점진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간다는 목표를 세우고 지난해에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 홍보에 주력했으며 올해부터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시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우선 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자치구와의 협력을 위해 '지원순환형 도시환경 건설 우수 자치구 평가'에서 '음식물쓰레기 분야' 비중을 30%에서 45%로 확대·강화했으며, 인센티브도 차별화했다.

공동주택 종량제(RFID) 보급사업도 확대해 5억4000만원을 투입해 270대를 1만1800세대를 대상으로 설치했다. 이 시스템은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공동주택 34만세대를 대상으로 금년까지 14만1800세대를 설치해 43%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다.

## 전남도, 올해 283개 기업과 3조3450억 규모 투자협약

전남도는 올 한 해 283개 기업과 3조 345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 2만 5000개의 새 일자리를 만든 것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전남도는 18일 도청 왕인실에서 '2017 투자유치 한마당' 행사를 개최, 올해의 투자유치 업무를 총결산하고, (주)가리미 등 8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또 투자유치 우수 9개 시군, 기업 대표 등 유공자 10명을 시상했다.

이날 행사에는 도지사 권한대행 이재영 행정부지사와 박홍용 목포시장, 강인규 나주시장 서기동 영례군수, 김성 장흥군수, 김준성 영광군수, 이동진 진도군수 기업 대표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전남도는 올 한 해 분양률이 저조한 산업단지 활성화와 투자 적지 해안(섬) 개발계획 수립 등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을 펼쳐 280개 기업 유치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특히 여수경도 1조 원 투자유치 및 경제자유구역 편입, 고흥 진지도 휘게 라이프스타일 복합휴양단지 1000억 원 투자유치, 진도 대명리조트 건축 착공 등 대규모 복합리조트

투자가 활발히 이뤄졌다.

여수에 국내 최초 (주)신한에어 스카이투어 유치로 항공관광 산업을 선점했다.

또 2014년 7월 이후 에너지밸리 투자기업 280개사와 대기업인 GE 사무소를 유치했고, 이 가운데 150개사의 투자를 실현해 빛가람 혁신도시가 명실상부 에너지신산업 중심지로 부상하는 기틀을 마련했다.

이날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목포 대양산업에 (주)가리미(대표 임복남) ▲나주 혁신산단에 (주)우성 무역산업(대표 김만호) ▲구례 자연드림파크(1단지)에 아이클농산(주) 김기주 ▲장흥 바이오산단에 세명(주)대표 조대현 ▲영광 백수읍 대신리에 이수인베스코(주)대표 김성미 ▲진도읍 쌍정리에 The랜딩 171관광호텔(대표 김정애) ▲광주해남식품특화단지에서 광풍에(주)대표 성경희 ▲장성 동화면 용정리에 (유)새한글로벌(대표 김원만) 등 8 곳이다. 총 투자 규모는 1135억 원이고 272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김정환 기자

"호남신문과 함께 할 주재기자 모집합니다"

---

## 해남 · 나주 · 목포

---

湖南新聞이  
지역공감  
미래창조  
정론직필의  
나무를 키우겠습니다.

전 화 : 062-224-5800  
e-mail : ihonam@naver.com  
F a x : 062-222-5548  
홈페이지 : www.ihonam.com

---

## 湖南新聞

고객 감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고을석 세무회계사무소

- 법인 설립
- 양도상속증여
- 기업 진단
- 기 장 대 리
- 건설면허신청
- 외부 감사

광주시 서구 매월동 948 산업융재용센터 30동 217호(풍암지구)  
TEL : 062-603-1060 FAX : 062-603-1062  
H·P : 011-641-6152

- ▶ 비계 구조물 해체공사
- ▶ 석면 해체공사
- ▶ 지정·건설 폐기물 처리
- ▶ 석면조사

측량 >> 토목 설계 >> 도시 계획  
토목공사 >> 창업상담 >> 관계민원업무

광주 서구 쌍촌동 994-1 영산강빌딩 별관 203호

(주)고려환경개발 Tel : 062)361-0404  
(주)고려기술공사 Tel : 062)362-8251

## 월드노무법인

World Labour Corporation

- ▶ 노동법 기업컨설팅
- ▶ 산재업무대리
- ▶ 급여체계 정비사
- ▶ 징계(해고)자문
- ▶ 4대보험 무료대행
- ▶ 노동부 지원금

노동부 옴부즈만위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광주·목포 노동청 전문위원

## 대표/공인노무사 박정태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04 밀알신협 5층

Tel : 062)512-0336 H·P : 010-3624-0338